



‘신종 코로나’ 여파 제주경제 직격탄

평년대비 관광객 40% 급감 지역경제 타격 숙박업소·렌터카 업체·식당가 모두 ‘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이 오는 4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일 기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만3657명으로 1년 전의 3만4998명에 견줘 32.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2321명에 불

과, 작년의 4013명보다 42.2% 급감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전인 1월 18일 기준, 제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은 5377명으로 1년 전의 3793명과 비교해 41.8%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인다. 내국인 관광객도 이날 3만608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5338명에 견줘 2.1% 높았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중 중국 직항편도 감소세로 전환했고 탑승률도 최고 86%대에서 29%대로 급락했다. 중국노선도 165편에서 108편으로 1/3가량 줄었다. 2월중 제주발 중국노선이 24편 감편 운항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숙박 및 차량 예약이 취소되고 주변 식당가도 울상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한 상품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면세점 주변의 호텔 예약 취소율은 30%대에 이른다.

지역상권의 경기도 냉랭하다. 중국과의 사드 사태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 터라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제주관광시장에 이번 신종 코로나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이뤄지는 세미나와 수학여행 취소 문의가 잇따르는 데다 패키지 여행상품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렌터카의 예약 취소는 90%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2월 중 도내 숙박업소 가동률도 20%대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여행업체 대표 K(48)씨는 “숙소와 렌터카, 관광지 등을 연계해 저렴한 가격에 여행상품을 준비했지만 최근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하고,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한라봉·하루방떡 온라인 매출 뜨겁다

원액 15% 가미... 보는 재미·먹는 재미 ‘쫄쫄’ 유통비 마진 최소화 재래시장 등에 출시 계획

서민 만들 수 있고,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제주특산품을 만들어 농가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섰다. 특히 한라봉떡과 하루방떡을 만들기 위해 성형기를 자체 개발하고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다. 또한 멥쌀로 만든 떡을 냉동유통 하면서 자연해동 후에도 제품의 원상대로 복원되는 배합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상태다. 여기에 과즙이 살아 있는 앙금도 자체 개발해 제품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떡을 개발한 김수용 박사는 “개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성형틀과 자동성

형기 제작만 수차례 실패했고 1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해 2개의 특허를 신청했다”며 “이와 함께 찹쌀이 아닌 멥쌀을 냉동하고 자연해동해 먹을 수 있는 배합기술 연구까지 지난해 성공하면서 한라봉떡과 하루방떡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대표는 “한라봉떡은 천연 색소의 빛깔 그대로를 재현하기 위해 한라봉 원액 15%가 들어있고 앞으로 풍미를 더하기 위해 30%정도까지 배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특히 멥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상태에서도 전자레인지에 30~40



하루방 모양으로 보는 재미를 더한 하루방떡.

초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비 마진을 최소화 하고, 재래시장 등을 통해 조만간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공장내 체형 부스 운영과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라봉떡과 하루방떡은 출시하고 온라인 판매 1주일 만에 하루평균 택배박스 600개가량 주문되면서 인기 상승 중이다. 백금탁기자

12월 제주산업활동 생산·소비 모두 감소

경기침체 속 전년동월대비 10.0%·3.5% 줄어 호남통계청 “출하·재고는 1.8%·21.1% 늘어”

지난해 12월 중 제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가 경기침체 속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줄며 연말 특수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9년 12

월 및 연간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제주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10.4(잠정치)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전월에 견줘서도 12.5% 각각 감소했다. 의약품(284.3%), 식료품(8.4%), 비금속광물광업(42.3%) 등은 증가했으나 음

료(-66.0%) 등 제조업(-26.10%)과 함께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아스콘 및 레미콘 등의 비금속광물(-21.8%)은 하락했다.

12월중 제주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전월 대비 1.5% 각각 증가했다. 비금속광물(-20.8%), 전기가공업(-2.8%), 고무·플라스틱(-36.9%) 등은 감소한 반면 음료(22.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83.0%)·의약품(78.2%) 등은 증가했다.

이 기간의 재고도 전년 동월 대비 21.1% 늘어난 반면 전월에 견줘서는

20.0% 감소했다. 식료품(-10.9%), 고무·플라스틱(-32.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8.6%)은 감소했지만 음료(97.5%), 비금속광물(61.3%), 화학제품(11.3%)이 증가세를 보였다.

12월중 제주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지수는 95.2(전국평균 104.1)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가전제품(28.9%)과 화장품(2.7%)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신발·가방(-22.2%)을 비롯한 의복(-12.5%)·기타상품(-12.4%)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2월 3일~2월 9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한라신용협동조합	김명옥	1970년 2월 6일	
제주은행 이도뉴타운지점	오민순	2012년 2월 6일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함께한 믿음 50년, 희망찬 미래 100년!”

▶한라신용협동조합=6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명옥·사진)은 1970년부터 제주도민의 동반자로 함께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으로 지난해 자산 5600억여 원을 돌파했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김명옥 이사장은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50년, 그 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희망의 빛이 되어 제주 지역의 따뜻한 희망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757-7171.



“고객 가치 높이는 고객중심 금융서비스 제공”

▶제주은행 이도뉴타운지점=6일 개점 8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이도뉴타운지점(지점장 오민순·사진)은 제주시 이도2지구 내 한일베라체 아파트 단지과 탐라중학교 인근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민순 지점장은 “제주은행 이도뉴타운지점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들께 감사를 드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지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22-7530.



외국인 이용 숙박업·음식점 ‘신종 코로나’ 차단 총력 대응

제주시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34개소(외국인 운영업소 중국 7, 미국 1, 일본 1개소 포함)와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 300여개소(중국어 외국인 운영업소 95개 포함)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은 직접 방문해 손세정제와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중국인 숙박여부와 퇴실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투숙객중 고열·기침환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위생관리과로 연락하여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음식점내 화장실 공동수건사용 금지 및 손세정제 비치, 중국인관광객 접객거부 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박업·외식업 등 18개 위생단체에서도 해당 위생 업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과 신고요령 등을 문자메시지 및 안내문서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황 종료시까지 식중독예방대책상황실 운영과 연계, 예방수칙 안내 및 고열·기침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통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차단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로또복권 <제896회>

당첨번호	5, 12, 25, 26, 38, 45
2 등 보너스숫자	23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강력한 라임효과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꽝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